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合八面
發行人 方應謨 編輯人 …
發行所 朝鮮日報社

社說

知識階級의 自暴自棄

一

封建領主들의 固陋하고 頑强한 城壁을 깨뜨려부시는 同時 새로운 文化建設에 汲汲하든 當初의 市民階級으로 말하면 文化方面에 對하야 거의 巨大코 超絶한 努力을 支拂하얏스니 거긔 달아 그 結晶도 실로 燦爛한 바이엇지 안타 宗敎改革을 보라 文藝復興을 보라 아니 十八世紀 末葉까지 西歐文化의 發達되야 온 現象을 보라 어데까지 그들은 眞摯한 思想과 忠實한 活動으로써 自身을 직히고 또 世上을 對하얏다 先驅者의 情熱이 漸次로 凍結되야 간다 하더래도 아즉 그들은 남은 情熱을 保全해 잇섯다 그러나 그들은 自然主義的 標語아래 一面의 暴露를 無精하야 一面의 掩蔽를 도모하기 시작하고 神秘主義的 看板아래 不可知的 歸依를 滿足하야 現實의 逃避를 꾀하기에 이르럿다 自然主義와 神秘主義가 다 가치 失敗로 돌아간뒤 所謂世紀末的이라고 부르는 雰圍氣는 市民文化의 頹廢를 나타내는 同時에 그 最後的 吊鐘을 울리엇든것이니 지금까지의 市民文化는 生長의 繼續이 아니라 오즉 反動의 存在다 이것이 어쩌 藝術에만 限해서라? 모든 다른 文化가 이와 똑가튼 적어도 이와 類似한 過程을 밟아온것이다

二

維新直後 日本도 新興文化에 對하야 凡然치 안한 努力을 앗기지 안햇스나 얼마가지 못하야 곳 市民文化의 世界的 頹廢와 合流해버리고 말앗다 한편으로 戀愛 探偵 武士道 等의 小說의 大流行時代를 이루고 다른 한편으로 浮世繪의 交響이 노와 日本市民階級 早老를 文化로써 이야기한다 그러나 第一不運하고 딱한것은 市民文化를 憧憬하는 朝鮮內의 稱紳的 知識分子이다 그들은 이미 新興의 當을 노치어 오즉 反動의 거름을 마치나 市民階級의 發達이 幼稚한 朝鮮에 잇서 그들을 隱蔽하는 地盤이 든든치 못한 朝鮮에 잇서 그들의 地位는 실로 말이 못된다 그래서 오즉 그들의 아페는 自暴自棄의 길이 남아 잇스니 李太白 杜子美式의 陶陶한 醉興을 빌지 못하면 賭博 閑談 等으로 消遣을 일삼는다 東洋式 隱士法으로 보면 隱於樵 隱於漁 隱於市가 다 조흐니 隱於賭博及閑談도 不可할것이 업스되 自己의 生命을 自己스스로 咀呪하는 곳에 그들의 生活樣式과 그들의 趣味는 우리로 보아 異常한 느김을 아니밧지 못한다 勿論 知識分子의 이와 가튼 傾向은 오즉 朝鮮안에만 限치안코 近來 日本에서도 만히 發見할수 잇스나 朝鮮의 知識分子는 더욱이 甚하다 왜 그러냐하면 日本의 知識分子들은 그만한 任務를 行함으로써 그만한 生活의 維持를 圖得하는것이지만 朝鮮의 知識分子는 그러한 幸運을 가지지 못하는까닭이다

三

昨日 本報 第二面의 報道로써 보면 朝鮮에 잇서 一流知識分子들이 或은 賭博에 또 或은 秘密땐스에 陶醉해 잇다고 한다 이것은 어데까지 우리의 論評한 바를 裏書하는것이나 그러나 그 報道를 빌지 안드라도 朝鮮社會에 잇서 그러한 現象이 蔓延되야 가는 것은 감추지 못할 事實이다 麻雀은 軍閥中國에서도 亡國의 遊戲로 排斥하는 것인바 最近 朝鮮內 京鄕各地에 퍼저 公開賭博으로 利用되고 잇는것이니 말할것도 업고 땐스는 우리가 決코 그 自體를 拒否하는 바 아니나 男女의 肉臭를 發散하는 低劣한 形態로 輸入되는데 잇서 公開와 秘密을 勿論하고 反對치 아니치 못한다 이러한 麻雀과 땐스가 오즉 墮落하야 無用한 知識分子의 專門職業으로만 制限된다면 또 모르겟스나 有爲한 靑年을 誘入하야 有望한 그 前途를 그릇치지나 안할까하는 點에 對해 우리의 憂慮가 決코 적을수 업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그들의 그러한 生活을 校正하려는것도 아니요 또 그러라고 그들의 그러한 生活을 漫罵하는것도 아니다 우리는 오즉 그들의 生活의 裏面을 究明하야써 靑年들을 깨우치고자 할뿐이다

歐羅巴에 風雲濃厚

墺地利國防軍이 國境에 集結을 開始

『나치스』突擊隊國境突破說로 選拔射擊隊組織하야 配置할터

事態를 極度로 憂慮視

【電通維也納二十二日發】『나치쓰』突擊隊가 大擧國境突破를 計劃하고 잇다는 報道에 墺地利國防軍은 續續國境에 集結하야 優勢한 射擊兵力을 充實히 하기로 하야 志願制度에 依한 選拔射擊隊를 組織하야 九月上旬까지에는 獨墺國境全線에 配置를 終了하기로 되엿다 이 新增援隊와 『나치쓰』의 對立은 國境空氣를 去益險惡化할것이며 事態極度로 憂慮되게 되엿다

獨逸의 軍備擴充은 國際平和에 危害

前英海相『칠칠』氏說

【巴里發】前英國海軍大臣 원스톤·칠칠 氏는 最近佛國『에코노믹 에 피난시엘』(Economique et Financiere) 紙上에 獨逸軍備制限問題에 關하야 左記攻擊論文을 揭載하엿다 獨逸이 主張하고잇는 軍備問題는 今年內에 急速解決할 必要가 잇다고는 認定치 안으나 獨逸에 對하야 佛國과 同等한 國防力擴充權을 許치 못하는것은 國際平和를 危害하는것이다 軍縮會議를 成功케 하는 要訣은 各國이 모도 自國의 軍備를 隱蔽치 안코 公表하는데 잇다 武器는 其自體가 나쁜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隱匿하는것이 더욱 나쁘다 그것은 歐洲大戰以前에 獨逸이 軍艦을 秘密建造한 事實이 獨逸에 對한 國際的 敵愾心을 挑撥하엿다는것으로 證明된다 最後로 國際聯盟에 對하야 諸國間의 軍備를 正直하게 公布케하고 公正한 立場에서 諸國의 軍備를 監視하기를 特히 希望하는바이다

孔祥熙氏 蔣介石訪問

【上海發】中央銀行總裁 孔祥熙氏는 十七日朝八時四十五分 夫人令息을 同伴하고 蔣介石氏로부터 派遣된 飛行機로 南京經由 廬山으로 向하엿다 蔣介石氏가 孔祥熙氏를 廬山으로 招致한 目的은 棉麥借款分配問題에 關한 商議를 하기로 함이라는바 孔氏는 十七日 上海虹橋飛行場에서 出發時 다음과 가티 말하엿다 蔣介石氏가 余를 招致한것은 棉麥借額에 關한 相議라고 생각된다 그外에 財政問題도 이야기될줄 아나 맛나본後가 아니면 모르겟다

殉職者에게 祭粢料御下賜

【電通東京二十三日發】海軍省公表 今回特別大演習中 佐世保航空隊飛行機一台를 喪失하야 殉職者를 내고 또 五名의 死傷者를 내엿는바 이에 宮中에서는 各其祭粢料又는 御菓子料를 御下賜하사 御慰問하시엿다

北朝鮮鐵道移管 勅令發布를 上奏

…者協定成立된 北朝鮮鐵道移管問題에 關하여는 目下關係當局者間에서 契約書를 起草하고 잇는데 總督府에서는 [illegible] 法律的으로 基礎를 짓기 爲하야 九月中에 勅令發布하기를 上奏할 豫定이다

滿洲國側次回에 最後決定意向表示

蘇聯側은 換算率審議延期를 提議

北鐵四次私的交涉經過

【電通東京二十三日發】北鐵讓渡第四次私的會談은 二十二日午前十一時부터 開催 蘇聯側은 換算率을 技術的事務的으로 決算하기 爲하야 至急委員會를 設置하려고 不遠本國으로부터 專門委員인 國立銀行參與官 『발간니코프』氏를 東京으로 招聘하기로 되엿다 다 蘇聯側의 換算率提議는 今回는 中止하고 십다고 陳述하엿슴에 對하야 大橋滿洲國代表는 蘇聯側의 不信態度를 詰難하야 次回私的會談에는 반다시 換算率에 對하야 具體的提議하기를 希望하며 滿洲國側은 次回를 最後的決定을 하고십흔 意向이다 라고 再言하고 決然的態度를 表示하고 會談을 終了하엿다

米國의 追加關稅 誤解된 報道로 判明

【聯合東京二十三日發】日本產電球及고무靴에 對하야 米國關稅當局은 二十一日追加關稅를 賦課하기로 決定하엿다는 一部外電에 關하야 外務省에서는 急遽調査한 結果 右는 全然誤解에 依據한것이 判明되엿다

『씸라』會商 日本代表出發

【電通東京二十二日發】『씸라』會議代表 澤田、寺尾、千田氏等 一行은 二十二日午後七時半 東京驛發로 下하엿는데 重光外務次官 吉野商工次官 杉村公使와 其他多數의 餞送이 잇섯고 더욱 電通特派員과 東記者 一行도 갓치 出發하엿다 一行은 二十四日午後三時 神戶를 出帆하는 白山丸으로 新嘉坡로 向하야 同地에서 『예、아이』汽船으로 『콜캇타』에 上陸하야 九月十八日에 씸라에 到着할 豫定이다

滿國騎兵團 反軍에게 被擊

連長以下十數名負傷

【電通奉天二十三日發】二十二日午前九時頃 東豐縣境에 吉林省磐石縣方面에서 逃走하여온 黑虎、天虎合流反軍約三百名이 襲擊하야 山城鎭駐屯의 滿洲國軍騎兵團과 三時間동안 交戰하야 連長及兵十數名을 負傷식키고 逃走하엿다 急報로 海龍守備隊 風間大尉가 引率하는 ○○名은 卽時討伐次로 出動하엿다

【本社世界一週紀行】 『팟쇼』治下의 伊太利帝國 (十)

李順鐸

(承前) 伊太利는 農業國이다 全人口의 約五割이 農業其他의 原始產業에 從事하고 二割남즛이 工業에 從事한다 이 工業도 大部分은 自國의 農業과 漁業을 主로 하는 工業이다 이런대다가 人口는 稠密하고 今日에는 海外로 나갈대도 거의 업기 때문에 土地는 鋤鍬의 드러갈수 잇는대는 다 드러갓다 비록 山上이라도 多少平坦하며 岩石만 업스면 耕作되엿다 그리고도 內廷이 되며 伊太利田野는 한 庭園이다 特히 果樹의 栽培 桑木의 栽培가 妙하며 歐洲의 다른 나라와 달너서 牧場은 羅馬附近을 除하고는 거의 볼수가 업다 農業國에 牧畜이 업는것은 當然한 일이다 形便이 이러함으로 伊太利가 歐羅巴에서 國境問題를 가지고 늘 싸우는것은 그럴듯이 늣기여진다

今日의 伊太利에는 어느 地方이든지 公私屋舍를 不問하고 『못소리니』의 寫眞이 아니걸닌데는 거의 업다해도 過言이 아니오 『파시스타』의 『뻬지』(徽章)안단 사람을 차라리 보기가 드물다 이와가티 『못소리니』의 힘은 크며 『파쇼』에 反하는 言動은 極度로 彈壓하야 表面으로는 다른 色彩를 가진 言動은 조금도 나타나지 안는다 만일 共產主義 其他의 『파쇼』에 反하는 者가 잇스면 잡어다 가두는지 죽이는지 잡어간 후로는 何等의 消息을 모른다 한다 그리하야 數萬名의 共產黨의 去就를 모르는 者가 不知其數라고 한다 政治上으로는 이러한 歷力을 가진 『못소리니』도 個人的으로는 極히 溫厚한 紳士라 한다 그리하야 內外國人을 勿論하고 面會를 請하면 서슴지 안코 이에 應한다는데 博覽會期에는 甚히 奔走하야 特別한 用件잇는 者 外에는 面會를 拒絶한다고 한다 따라서 面會해볼 생각도 엄지 안엇지마는 日字의 關係도 잇고 해서 斷念햇다

十年記念의 博覽會

今年四月부터 明年三月까지에는 羅馬에 『파시스타』治績十年記念의 博覽會가 開催中에 잇다 그리하야 國內에 大大的으로 그 治績을 宣傳한다 羅馬의 『國民街』(Via Nazionale)에는 『파쇼』式建物 (이라케 말하면 웃겟지마는 그 집의 構造가 奇妙하야 伊太利사람도 파쇼式이라고 하는 사람이 잇다) 이 잇는데 入口層層臺에는 三重으로 『파쇼』軍隊가 擁銃하고 서잇으면서 威嚴을 뵈이고 그 內部에는 博覽會라고 하는것이 全部 『파시스타』에 關한 出版物과 軍器와 그 附屬品 『파시스타』生長의 過程 十年間治績의 變遷 議會政治時代와의 比較 外國國勢와의 比較表 等으로 充滿해잇다 그리고 每日午後에는 『파쇼』軍隊가 樂隊行列을 하야 그 威力을 뵈이고 그뒤에는

男女老少 의 『파쇼』讚揚黨이 따러간다 이 宣傳博覽會에 한가지 奇拔한것은 內外國人을 勿論하고 羅馬를 通過하는 者에게는 汽車賃의 七割引을 해준다는것이다 오즉 羅馬서 더 남어는 반다시 觀覽劵이 잇서야하는데 이것도 博覽會場에 入場(有料)해서 官憲의 符印을 엇어야 한다 따라서 羅馬에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一次는 적어도 博覽會에 入場해야 함으로 自然히 宣傳이 된다 나도 『나포리』로부터 瑞西國境(이셀)(Iselle)까지 라는 길에 이 恩澤을 입엇는데 이때문에 二次나 入場햇다

以下에 나는 『파쇼』治績이 엇더한지를 特히 經濟上으로 보아서 簡單히 紹介하고져 한다 經濟上으로 보면 『파시슴』은 組合經濟임과 同時에

統制經濟 이다 組合員인 人民의 私有財產을 認證하여 個人의 私的活動을 認證하되 組合의 權威로써 이를 統制한다 이러한 統制의 最高機關으로 協同組合全國委員會가 잇고 그 밑에 協同組合이 잇고 다시 그 밑에 組合이 잇다

生產統制 모든 生產에 잇서서는 或은 自意的으로 或은 强制的으로 各種產業을 縱橫으로 合同하게 하야 生產組織의 經濟的技術的改造를 要求하여 競爭을 制限하야 生產物의 調節을 圖謀한다

賃金統制 生產으로부터 生하는 利益은 勞動者에게도 均霑케하며 勞働賃金은 生活狀態를 標準하야 最高最低의 制限을 設하고 勞働의 需要供給은 公立職業紹介所에서 統制하되 組合大臣이 이를 監督한다

物價統制 上述한 바와 如히 生產統制를 勵行함으로 需要와 供給이 自然히 均衡을 取하야 物價는 調節이 되여서 騰落의 差가 크지 안타

勿論物價 를 低下키 爲하야 더욱 努力함으로 그 때문에 한便으로는 生產費의 低下에 努力하며 다른 便으로는 生活費의 低下에 努力한다 이 生活費의 減下를 爲하야는 政府는 俸給手當의 減下 家賃의 減下에 努力한다 그리고 高一不當한 價格을 發見하면 嚴重히 處罰한다

總裁一任問題를 滿場一致로 可決

政友會議員總會에서

【電通東京二十三日發】政友會는 二十三日午後二時부터 本部에서 幹部會를 開催하고 總裁以下各顧問 總務 幹事長以下黨幹部出席으로 爲先 總裁로부터 齋藤首相과의 會見內容을 說明報告하엿슴에 對하야 河上常議員長은 總裁는 敢히 裁斷主旨에 悖馳하는 行動을 取하지 안흘것으로 確信하고 이에 同意한다고 陳述하고 다음 島田總務는 本問題는 長老會議서도 是認하엿슴으로 一切를 總裁에게 一任하고 십다고 諮問하야 滿場異議업시 承認하고 繼續하야 同三時부터 議員總會를 開하엿다 總裁以下在京各代議士參集 山口幹事長의 人事後 島田總務로부터 首相과 總裁會見顚末에 對하야 總裁가 幹部會에 報告한바를 報告하고 이에 對하야 野竹田兩氏로부터 希望質問잇고 島田總務로부터 政策內容決定에 對하야서는 今回國策協定에 關한 限도 다 總裁에게 一任하고 그 決定手續如何도 總裁의 方針이 잇다고 答하고 其他各其答辯하는바가 잇고 採擇하는 結果 滿場異議업시 提案대로 決定하고 三時五十分에 散會하엿다

民政黨과도 懇談하여야 된다

松田民政黨幹事長談

【電通東京二十三日發】齋藤首相과 鈴木總裁와의 會見結果에 對하야 民政黨松田幹事長은 말하기를 今日의 會見은 肝膽을 相照하야 精神的으로 現內閣을 援助하자고 相議한것이라고 생각한다 鈴木總裁가 말하는 人心不安一掃는 吾等도 贊成한다 鈴木總裁는 一兩日中에 齋藤首相을 訪問하고 政友會의 政策을 提出할 터인데 國策協定은 政友會와 政府의 協定만으로는 圓滿히 成立되지 못한다 現內閣은 政、民兩黨이 支援하고 잇슴으로 兩黨首者가 一席에 會合하야 懇談치 안으면 成立되지 못할것이다

首相의 援助要望에 鈴木氏主旨諒承

政友會議員總會席上에서 島田總務의 報告內容

【電通東京至急電報】鈴木政友總裁는 二十三日午後二時부터 開會된 同黨幹部會에서 同日朝 齋藤總理와 會見한 顚末을 詳細報告한바이엇는데 右報告內容으로 島田總務가 政友會議員總會에서 報告한것은 如左하다 齋藤總理는 二十三日朝 鈴木總裁와의 會見에서 總裁에 對하야 時局의 重大함에 對하야 擧國一致로 援助를 願한다 政策其他問題에 關하야서는 追後議論을 願할터이나 外交關係에 對하야서는 特히 重大한 境遇임으로 國內의 諸努力이 一致하야 所謂擧國一致의 形式을 備置하야 進行하고 십다고 생각한다 이 意味에서 서로를 주기 援助를 願한다고 陳述하엿슴에 對하야 鈴木總裁는 總理의 主旨는 잘 諒承하얏다고 答하고 그로부터 雜談的意見交換으로 옴마 此等問題에 關하야 總理의 希望대로 政府를 援助함은 조흐나 外交問題의 外國防問題 產業上諸問題에 對하야 總理는 各其相當한 案을 練磨하야 이미 充分한 方針對策을 가젓는가라고 質問하얏슴에 對하야 總理는 모다 아직 具體的으로 協議決定한 것은 업다고 答하고 또 選擧問題도 올마 總理는 選擧法改正에 對하야서는 選擧에 너무 金錢이 들지 안토록 하고 십다 다음 敎育問題로 轉換하야 學制改革의 必要를 陳述하고 學校數가 너무 만어서 減少한다고 學校減校論을 하고 鈴木總裁의 人心不安對策에 關하야서는 總理도 同感의 意를 表示하고 다음 政府의 援助方法에 對하야 總裁로부터 다만 援助라고 하여도 漠然한 으로 結局 政府가 行하려는 政策과 政友會의 主義政策과 가 合致하는 時에 비로소 所期한 目的을 達할것임으로 總理도 從來政友會의 主張하는 三大指導精神과 十大綱에 對하야 充分히 考慮하기를 바란다 政府의 政策에 對하야서는 黨으로 相當한 援助를 不惜한다고 陳述하엿슴에 對하야 總理는 政友의 主義政策에 關하여서는 크게 考慮한다고 約束하고 이에 世上을 騷然케한 總理와 總裁의

安達總裁에게 敎示를 求할 일

國民同盟側見解

【聯合東京二十三日發】唯一의 野黨인 國民同盟은 今般政府及政民兩黨의 政策協定進行에 際하야 齋藤首相及鈴木若槻政民兩黨總裁는 國家本位로 擧國一致의 實을 擧하려고 하면 政民兩黨이 눈뜨기 前부터 그것을 黨外에서 高唱한 安達同總裁에 對하여도 敎示를 求하는것이 當然하다는 見解를 가지고 今後의 推移를 注視하고 잇다

會돗은 無事히 終了하얏다

海軍演習中 死傷五名發生

飛行機一臺도 喪失

【聯合東京二十三日發】海軍省公表=今般大演習에서 發生한 事故는 다만 佐世保航空隊의 飛行機一臺를 잇고 殉職者를 내인外에 驅逐艦漣의 事故로 負傷者數名을 내이고 其他二、三艦에서 波濤 때문에 五名의 死傷者를 내엿슬 뿐이다

米紡績界活況

【電通華盛頓二十二日發】米國紡績은 加工稅實施期前에 急速買入한 多量의 原棉을 保有하고 綿製品市場의 好調됨에 따라 目下자못 活氣를 띄고 잇는데 國勢局二十二日發表에 依하면 七月末現在全米總錘數는 三千八十九萬三千九百七十인데 其中現在活動하고 잇는 錘數는 二千六百六萬九千百五十八錘로 總錘數의 八割에 達하엿다

辭令

【電通東京二十三日發】
總督府通譯生 小野綱方
任總督府通譯官(七等)
總督府遞信書記 綿野秀雄
任總督府遞信副事務官(七等)
總督府道立醫院事務官 乙坂昇
依願免本官

人事·集會

▲金桐元氏(本社編輯次長) 滿洲에 出張中이든바 二十三日歸京

夕刊後의 市況

大阪短期最終氣配

大新	一〇九五〇	一〇〇低
鐘新	一一六〇〇	一五〇低
日產	八四〇〇	九〇低
東新	一九二〇〇	一九〇低

東京短期

後場	大引	高價	低價
東新	一九九〇	一九四〇	一九五〇

橫濱生糸

當先 引 八五四〇〇

伊國서 時價二倍로 張學良氏飛機購入

【電通東京卄三日發】最近歐洲로부터 歸來하는 某氏談에 依하면 張學良이 伊太利서 契約한 飛行機는 偵察機六〇 戰鬪機一〇〇 爆擊機三六 이外에 『사보이아』飛行艇若干을 購入하려고 하고잇다 伊太利政府는 直接關係함을 避하고잇스나 民間會社直接契約하야 價格은 時價의 約二倍로 賣買된다 한다(陸軍省發表)

察哈爾省抗日軍 抗日繼續을 劃策

方、吉等이 組織을 更新

【電通東京二十三日發】當局側에 到達한 情報에 依하건대 馮玉祥下野後 察哈爾省의 抗日軍은 中央處置에 不平不滿으로 方振武、吉鴻昌을 抗日同盟軍總司令으로 하고 新組織으로 抗日을 繼續하려고 計劃中이다

大阪諸名問屋案內

夏物 羅紗洋服製品 品揃
商店에 限하야 商報及生地見本送呈함
大阪市谷町一 石尾仁本店

勞働 セーラー 乘馬ズボン 洋服各種 製造卸
非히 小倉綿布地로! 新天
大阪市東區內本町一丁目 若原重商店

(商店에限하야型錄見本用紙送呈)
秋冬向子供服品揃
店章申込者에限하야型錄送呈
大阪市東區北久太郎町心才橋筋
子供服製造卸 合名會社 梨木商店

十錢廿錢均一品卸 一般雜貨及高級品取扱開始
標準時勢보다恒常싸고게다가陳列裝飾을節約하야 五步싸게드립니다 諸費用을節約하고廉價함
日本百貨均一卸協會
大阪市東區北久太郎町二丁目 電話船場四二一九番 振替大阪五一八〇番
商報送呈함 要郵券四錢

敎育流行玩具製造卸
玩具各種卸問屋
大阪市南區松屋町筋末吉橋北入西側 若林金次郎商店 電話東四四〇五番
型錄及見本請求할時난 本廣告揭載新聞名을 必히 記入하시요

(時代的實用品)
ネクタイ一般 洋裝附屬雜貨製造卸
大阪市東區南久寶寺町三丁目 稻村商店 電話船場二七三二番
店章申込하는분에만型錄送呈

洋服附屬品
ヱヌケ印 ワイシヤツ、カラー
大阪市東區南久寶寺町心齋橋筋東入 茅本シャツ製造所
電話船場三七八二番 振替大阪七二九七六番
貴店章捺印して申込する方に商報送呈

有馬 靑山 大繩 三医学博士創製
結核 免疫 治療 豫防 診斷 新劑
日·英·米·加奈陀·佛·白 特許
日本國內의 成績 (全國醫家에게서어든報告統計)
肺結核의 初期 肺尖加答兒에는 特히 有効하야 他療法을 不要한다고 하며 全治輕快 [illegible]%
肺結核의 中期 非常히 有効하야 一般療法으로 더부러 全治輕快 八六%
外科的結核 에 有効하야 骨節關節結核에는 手術을 不要하고 全治輕快 八三%
眼科的結核 에 神効하야 其他에 健康을 顯著히 增進 全治輕快 九一%
秘尿生殖器結核 의 初期에는 手術을 不要하고 多數全快케하며 其全治輕快 七七%
肋膜腹膜炎 에도 著効가 잇고 多數 速히 全治식킴 全治輕快 九〇%
皮膚結核 에 對하야도 例外업시 効가 잇서 顯著를 保存하고 全治輕快 九二%
氣管支喘息 中本注射로 因하야 全略治 七九% 此難症에 試用할 價値가 充分함
痔瘻其他 에 對하야 本注射의 併用으로 全略治가 八〇%
發病豫防 의 特効가 證明되엿슴으로 虛弱兒童其他感染危險者의 豫防에 適切함
無害確効 不快反應絶無、効驗無比、數回의 注射로 治癒의 理想은 迅速確實한 効果에 在함
(醫家에의 證告) AOAOAO 아-오 AOAOAO A
文獻贈呈 發賣元 鍵藥商店 大阪市東區道修町三丁目

流失浸水二千戶 農作被害八十萬圓

範圍는全道十五個地方에미처 咸南風水災被害調査

【咸興】 지난팔월초의함경남도각지의 풍수재피해정도 조사는 이하통계에보이는바가티 전부십오개소의 광범위에 미처함경남도가심한바 이제 이십이일 까지 함남경찰부 보안과에서 조사한 전반피해통계를보면 대략 다음과갓다

地名	死傷(人)	家屋(戶)	田畓(町)	作物被害(圓)
咸興	三五一	八九五	[illegible]	[illegible]
安邊	一八	五四〇	三〇八	一〇七、一二九
洪原			[illegible]	[illegible]
定平			[illegible]	[illegible]
興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好仁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元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文川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長津			[illegible]	[illegible]
新乫坡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北靑			[illegible]	[illegible]
高原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新興			[illegible]	[illegible]
端川			[illegible]	[illegible]
惠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이외에 철교류실급결궤(鐵橋流失及決潰)가사십륙개소요 동침수(浸水)가이십팔개소이며 선박침몰급류실(船舶沈沒及流失)이 네척이요 동파손이 십륙척이며 산악류실 결궤가 전부십일개소 사백오십평에달한다고한다

減刑嘆願六千通 辯護士는無罪를主張

五、一五陸軍公判辯論

【電通東京廿三日發】 오、일오(五、一五)사건륙군측 공판제십일회는 이십삼일 오전팔시 제일사단 군법회의 법정에서개정하고 변론을 계속하얏는바관원(菅原) 변호사로부터제일회공판이래 방청이간에서 모은감형탄원서를 제출하야 피고등의 국민에게친감격과 영향에대하야 진술하고 본론에들어가십배특장으로

一、피고등은사상적으로좌경도안이요 우경도안이라 군인정신에의한것
二、금권관계등은 모도가 업다
三、검사의각오
四、굿은단결
五、무익한살해를피하엿다
六、당시와 현재에 심경의변화가업다

는등 이외에 네조목을강조하고 아홉시이십분휴회 동열시에 재개하야구형팔년에대한감형탄원서 륙천통을제시하고 륙군형법제이십오조 이항후단을 적용하면서 팔년이란 장긔는량해하기곤란하다 피고와가튼 죈형적애국사범에대하야 생살적(生殺的) 처치는 부당하고 무죄를주장하고다시 도범방지법(盜犯防止法)에대하야 피고등의행동은 가량 그릇된생각에이르킨 행동이라하야도 이것은당연히무죄라고 법률적론거를 명시한후 검찰관의론고를인용하야 그럿듯한론고로써친후에팔년을구형한것은불가해이다 이사건을무죄로하는것이비상시일본의타개적지도원리라고한후 십오분휴회 한시이십분 다시 개정하야무죄나 그럿치안으면집행유예라고 강조하고 결론에들어가 오、일오사건의효과로써

一、國民의大覺醒
二、政黨內閣의停止
三、國內施政을大改革
四、國防充實計劃實施
五、自主外交確立

이상다섯조목을 지적하고 차케국가를 담당한자는 륙군이라고한후 최후로재판장의책임에 언급하야

각관사는 각자의신렴과 립장에의하야 외부의간섭을 물리치고 단호하게 소신대로매진하기를 바란다

라고 결론하고 전후여섯시간의 대변론을 맛내엿다 오후세시십분폐정 차회는 이십사일이라고

前番의大水災로 滿身瘡痍의金剛山

四十七個의橋梁이崩壞流失 萬五千圓豫算으로應急修理

천하의 절경이며 세계의자랑거리라는금강산(金剛山)은지난이월의 대호우로인하야 내외금강에 가설하엿든 사십칠개소의대소교량은 전부류실되고 비노봉(毘盧峰)의금다리(金梯)、은다리(銀梯)는칠백여메돌이나되는산이 문허저 도로는전부매몰되고 부근의물작이가 되얏슴으로 발붓칠곳도업게되엿다 또한만물상(萬物相)부근의 널비이십여메돌가량의 메돌의도로가문어진것을위시하야 조금식문어진곳이 오십개소이며 십자담(十字潭)에는이백여메돌의대반암(大磐岩)이떠러저 금강산탐승은 당분간어렵게되엿든바 강원도(江原道)에서는 총독부토목과로부터재해복구비(災害復舊費)일만오천원의 지출을밧어 복구공사에착수하야 구월십일까지는 산속만에는 탐승에 지장이업도록하겟다하야 목하공사에 독려중이며 산밧게잇는 말휘리(末輝里)신풍리(新豐里)도로는 파손이 너무나심하야 당분간 복구될희망이 업다하며 온정리(溫井里)만물상과 온정리신계(新溪)간을통하는자동차는개통하얏다

鑛夫로潛伏 赤△化△宣△傳

朱乙炭鑛에서發覺

【淸津】 지난십오일경경성군주을온천경찰 주재소원(鏡城郡朱乙溫泉警察駐在所員)은 주을탄광부수명을 돌연 검거하여엄중취조중이라는데 내용을 대략 듯건대 피검된수명은간도(間島)방면에서 공산주의운동에 활동하든사람들로서 교묘이내지에 잠입하여 경찰에 눈을 피하여 천기탄광부가되어 다수로동자급어민(漁民)에게주의를선전하여오던바 당일은다수광부들을 모혀노코 주의에관한강좌를하다가 주재소원의 탐사로발견체포되여취조중이라는바 사건은 취조에따라 대확대될모양이라고한다

아름다운童心

이십이일아츰 부내본정경찰서(本町署)에는나히가 일곱살쯤된조선어린아이한명이나타나서현금이원을 동봉한편지한장을 주고갓는데 그편지에는 제이학교가되야 각학교에서공부를 시작하엿스나 책을넉넉히 사보지못하는 아이들이 잇슬터이니 적으나마 이것으로 불상한아이들에게 주어달나는것이 엿슴으로본정서에서는화광교회(和光敎會)로보내여사회사업에쓰도록하엿다

大邱勞動會事件 九月十八日公判

【大邱】 대구지방법원 (大邱地方法院)일심판결에 피고와립회검사가다가치불복공소(控訴)한 김광서(金光瑞)、리승균(李承驗)、김학이(金學伊)등에 관한대구로동회(大邱勞動會)사건은 구월십팔일 대구복심법원에서상공판이열리기로결정되엿다한다

三年동안에 四十萬圓激增

全朝鮮馬券販賣高

경성(京城) 부산(釜山) 대구(大邱)군산(群山) 평양(平壤)신의주(新義州)이상 여섯 경마구락부(競馬俱樂部)에서 흥행한 춘긔경마권(春季競馬券)발매고의 삼년간성적은 소화륙년도는 흥행삼십일일간에칠십일만일천팔백오십사원、칠년도는 흥행사십이일간칠십오만이천칠백팔십륙원 팔년도는 흥행사십일간 일백십구만사천원으로일일평균매고는 륙년도는일만칠천원 칠년도는 일만팔천원 팔년도는 이만사천원 으로 해를따라 증가되는현상이라한다

팔년도 각지마권매상고는 다음과갓다

京城	五一六、五〇〇
釜山	二三四、〇〇〇
大邱	一四九、五〇〇
群山	六八、五〇〇
平壤	一四五、五〇〇
新義州	八〇、〇〇〇
計	一一九四、〇〇〇

反戰日嫌疑者釋放

【元山】 귀보반전데이사건의피의자 류흥(劉一)박춘하(朴春夏)외외수인은 이십일비시경에 전부석방되엿다한다

朝鮮라디오 聽取者數

조선에서라듸오의 혜택을 입을수잇는사람은 몃명이나 되는가 이십삼일의 체신국(遞信局)조사에의하면 칠월말현재 이만사천일백 이십륙명인데 일본사람이 이만일백구십칠명이고 조선사람이 삼천팔백십이명이다이밧게 외국사람이 칠명으로 일본사람의 수가조선사람의 이배반이상이다

巡査까지出動한 독갑이騷動劇

독갑이調査에警察盡力

【新義州】 요지음신의주매지정(梅枝町)량봉긔(梁鳳基)의집에는 안이밤중에 난데업는돌멩이가 빗발가티나려든다는 기괴한사건이 발생하엿다한다 이케이기괴한 사건을소개하면 권긔량봉긔의집에는 일긔가 흐리고인적이 고요한밤 엄한시경에는 주먹가튼 돌덩어리가 날려들으로 처음에는이것이 부근아이들의 작란이안인가하얏스나 돌덩어리는 그부근에잇는 의창재목점(義昌材木店)공지(空地)에서 날려듬으로 이상히 생각하야그곳을 주의하고감시하야 보왓스나 하등사람의자최는 업섯다는데 지난이십일밤에는 교통순사까지출동하얏다하며 량씨의집에는 장독、사기그릇할것업시모조리깨여저버렷스며 그집근물론부근일대는 이괴사건으로 인하야 적지안은공포를 늣기고잇는바 신의주경찰서에서는 이사건의 정체를 파악하려고 조사에착수하엿는데 요지음 이사건은독갑의 괴담으로 적지안은 흥미를 끌고잇다한다

絕緣妻에未練두어 亂刺코自己도自刎

會寧邑內에愛慾葛藤의活劇 女子는救出男子는危篤

【會寧】 십구일오후다섯시에 회령읍내 오산동(會寧邑內鰲山洞)에는 칼부림이 일어낫는데 사건의발단은 원적을 경성군주을(鏡城郡朱乙)에 두고 현재읍내오동(邑內五洞)에 사는 권성필(全成瑞)(四〇)이는 약오개월전에 어떤친구의중매로 원적을강원도고성군고산(江原道高城郡高山)에두고읍내오산동(邑內鰲山洞)에서 술장사를하든류춘하(柳春河)(二三)와서로맛나살어오면서권성필이는잡회상을하여버는돈은전부술만사마시고살림에는동전한푼도쓰지안음뿐외라 술장사하는데 공연히 일상의심을두고 싸홈만함으로 류춘하는 경찰서에말하야지난팔월삼일에 살림을갈러버렷다더니 그후에수차와서또다시살자고강요하는것을 류춘하는 응하지안엇는데십구일오후다섯시에 권성필이는술을취하야와서 술을 달라는것을 주지안는다고 식도(食刀)를 어더쥐고류춘하를 죽인다고 함부로찔러 손과다리에 십여개소나 상처를내여 정신업시넘어진것을 죽은줄알고 그다음엔자긔의 바른쪽가슴을 찔러죽으려하엿스나 일우지못하고 고민하는것을보다 회중의원(會衆醫院)에 입원시켜응급치료를하엿는데 류춘하는생명에별로히 관계가업스나 권성필은 방금생명이 위독하다고한다

共産軍廿名 住民三名殺傷

間島和龍縣東良社에서 領警은方今追跡中

【龍井間島二十三日發】 이십이일밤에룡정촌(龍井村)동남약삼십리 가랑되는 화룡현동량사(和龍縣東良社)에무장한공산군(共産軍)이십여명이갑작이나타나서 주민두명을 살해하고다시한명은 중상식혓다 이보도를접한 룡정총령사관경찰대(總領事館警察隊)는 이십삼일 아츰부터 출동하야 추격중이다

電車에轢傷

오후六시 십분경에 한강인도교를통과중이든 경전전차 백이십팔호가 인도교우편 질주하는중도에 로량진(鷺梁津) 사백사십사번지 김성환(金聖煥)의처 음씨(陰氏)가선로를횡단하다가치어외인편다리에중상을당하엿다

假洗濯員이 洋服을橫領

이십일일 오후에 주소가일정치못한 등원희이치(藤原喜伊治)(三三)는 부내 본정서(本町署)에 검거되야 엄중취조를 밧고잇는데 그는 금년봄이래황금정(黃金町)이정목 송옥세탁소(松屋洗濯所)의 외교원으로 가장하고 부내각처로 돌아다니면서 세탁주문을 바더서는 죄다전당을잡혀신정(新町)등지에서유흥비로소비한것인데 금액은 삼사십원에달한다

賭博犯人이 押送中逃走

【奉化】 경북봉화경찰서에서는 지난이십일일 정오경에도박혐의자일명을 취조가굿나 안동지방법원검사국 (安東地方法院檢事局)으로 송치하든도중호우로말미아마 중로에서비를피하게됨에 나리여월천을 하든중에 탈주하여종적을 감추엇다는데 봉화서에서는 대수사중이

『돈내여라』『못주겟다』!

昨年中에 四萬九千回爭訴

金錢借務臨時調停法準備 法務局에서審議中

차금(借金)에 우는빗장이들과 쥐여준돈을무슨수단이라도가리지안코 바더야만하겟다고하야 이러난시비가얼마나되는가? 작년도한조선재판소에서 취급한금전관계에대한 소송사건은 사만구천칠백십사건 금액일백삼십이만일천이백칠십여원이란 거액으로민사소송총수의 삼할을점령하고잇다 이에대하야 총독부당국에서는 사회정책의한아로 금전채무림시조정법(金錢借務臨時調停法)을 실시하야차금에우는 그들을 구조하야보겟다고 그동안권긔조정법의실시를권케로 각판면으로조사에착수하든일방 각지재판소수뇌부(首腦部)에 즉시실시함에대한가부의견을 조회중이든바 하등의반대의견이 업섯다는데이것을 실시함에는 각법원에약간의판사를 증원하게될터임으로 따라서상당한 비용을계상하지안을수업다하야 목하법무국에서는권협중에잇다한다

荒浪에鍛鍊된 赤銅色廿餘勇士

本社主催로漢江畔에開催된 水泳講習은昨日閉講

본사주최와 조선체육회후원의제일회남녀 수영강습회는 작이십삼일로 원만히마치게 되엿다당일오후두시부터는 폐강식(閉講式)을강습 장소인본사 특설수영장에서 성대히거행하게 되엿는바청각에 이르러본사 사장으로부터 식사가잇슨후 후원측인 조선체육협회 리사 김규면(金圭冕)씨로부터 열렬한 축사가잇슨후 뒤를니어 수영강습긔간중에 하로도 빠지지아니하고 개근(皆勤)한 남자이십명과 녀자두명에게 각각수업증서의 수여가잇서서 억센조선을 건설하자는 표어아래개회된 의미깁흔 제일회수영강습회는 금년으로서는 이로서끗을막게되엿는바 식후에강습원일동의 친목회까지잇섯다

◇사진은 강습생일동◇

兒童虐待防止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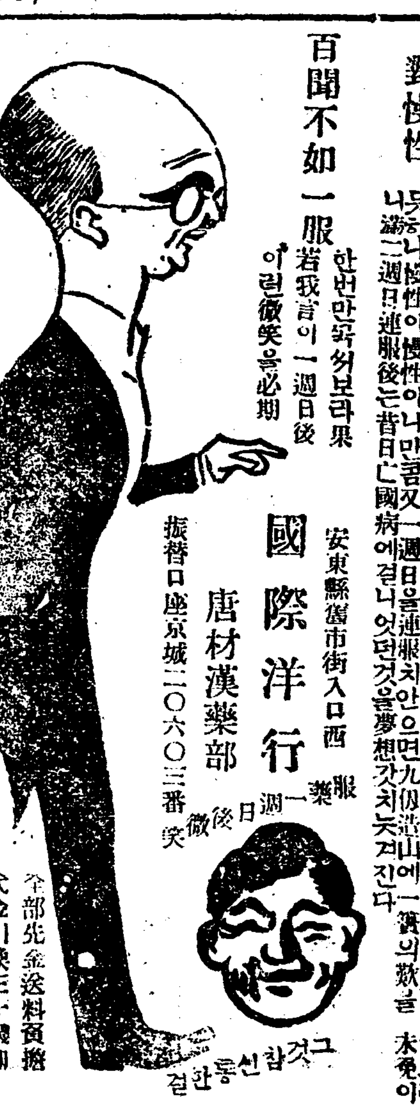
朝鮮에는當分間不實施 時期尙早라는漠然한理由로

일본내지에서는사회정책상이미공장법(工場法)구호법(救護法)등이、제정실시되야 상당한성적을엇고 잇스며 또한아동학대방지법(兒童虐待防止法)도 오는십월일일부터 실시 하게되엿다한다 그러나 이아동학대방지법을 조선에도 행할는지에 대하야총독부학무국에서 지금은 아직시기가일으다하야 조선에는 당분간실행하지아니할모양이라한다 즉조선에는 특수사정이 잇다하야 공장법도 시행하지아니하엿든바 이제다시 아동학대방지법도공장법과 동일한 리유로시행하지안으려는다하야 현하 조선이특수사정하에잇기때문에도로혀아동학대방지법을시행할필요를늣기는바가잇다 즉아동의 과혹한로동과 기타아동 심신의명랑한발육을저해하는사회악(社會惡)을배제하려는 의미에서 뒤반는일본내지와갓치곳이법령의시행을기대하고잇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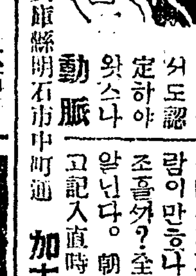
觀身病을悲 縊首코自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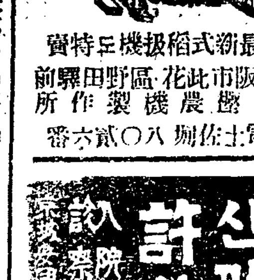
【金化】 강원도김화군김화면암정리 백삼십팔번지(金化郡金化面岩井里一三八番地)에 사는 김용품(金用品)의아들 김효원(金孝元)(二六)이란청년이 지난이십일일 오후칠시 삼십분경에동리개천가에 선나무에 목을매고 자살하엿다

(淋疾名藥) 君不聞中國有名藥乎?
國際洋行에서紹介하는 中國淋疾名藥征淋軍과 맛서보라
日本朝鮮에서千萬가지淋藥으로도根治치못한病은最後로安東縣

(中國名藥) 征淋軍
征淋 淋軍 菌의 滅勇 殺勢
百發百中이다 百萬마리가잇던지 淋菌맷
(斷言)
一盒服이면急性이라도當場根治가되고
二盒服이면慢性도永永根治되다
根治되지안는藥을쓸必要도업다 二日만지내보고異狀作用이업스면當場返戻하시오 不法한손해를끼치지안으리다 비病은나어지거나말어지거나 내라난그런心思는絕對無
(의라가치손해배상하야좃소)
〔淋疾藥征淋軍 二日分試用一圓也〕
急性全治用一週日分一盒二圓半 急性重疾全治用十五日分一盒五圓
慢性全治用一週日分一盒四圓半 慢性重疾全治用十五日分一盒八圓
服藥後의異狀 (보아라當場斷根식히난中國淋疾名藥征淋軍의效力)
對急性 服藥始作한지二日만이면고름과피가살살나오는小便과가티몰니여나온다맛치소낙비에더러운개천물을홀터내는듯하야滿一週日連服하면 雲捲靑天의愉快를늣기고
對慢性 服藥始作한지三日만이면慢性은急性으로轉嫁식힌다 滿一週日을連服치안으면九仞造山에一簣의欺을나니慢性이니만큼又一週日後면곳튼病勢가그럴滿二週日連服後는昔日亡國病에걸니엇던것을夢想갓치늣겨진다 未免이렬
百聞不如一服 한번만잡숴보라果 若我言이一週日後 이런微笑를必期

服藥一週日後微笑
그것참신통한걸
安東縣舊市街入口西 國際洋行 唐材漢藥部
振替口座京城二〇六〇三番
全部先金送料負擔 代金引換三十錢加

地方駐在員及出張員三百名募集 (但駐在員은地方居住人)
學力如何를不問하고奮鬪努力하시는分을希望함니다 有意之分은二錢切手同封履歷書를郵送하시오規定書를送付함(面會謝絕)
京城西大門電車停留場前
神聖堂本舖

넷부터일음은참말이오
薯蕷汁飯을먹고 茶를마시면中風이된다
動脈硬化、高血壓이되여잇는사람은、어떠한動機에 血壓亢進하고 腦溢血、卒中、中風을發할危險이잇다 ○薯蕷汁飯은만히먹고、그우에茶를사시면배가불너서腹部의血行이亢進함으로、腦溢血을發할것은現代醫學上에서도認定하야왓스나

動脈硬化高血壓은어떠케해야自己가바로알수가잇슬까? 動脈硬化의更春、血壓平靜下卽腦溢血、卒中風의突發과좀나서가는中風患者에는날만한再發이란어떠케하면豫防될까? 世上에는一時걱정되엿든中風이完治된사람이만흔나治療法은어떠케하면조흘까? 全部無料確實히仔細히알닌다。朝鮮日報에서보앗다라고記入直時ハガキ로照會하시라
動脈 兵庫縣明石市中町通 加古忠兵衛

製繩機

最新式稻扱機도特賣
大阪市此花區野田驛前 石農機製作所 電話土佐堀八〇貳六番

산과부인과 許信醫院
入院 診察 夜間 來往 治療 隨時

●中等科 晝夜 第一學年 約三十名 二學年 三年若干 願書順詮考無試驗許可 締切八月末日學期要二錢
●商業部 簿記、珠算、書、夜間部 修科 短期 卒業
總督認可 京城中等公民學校 生徒募集
京城府太平通大漢門横入 電本三九四三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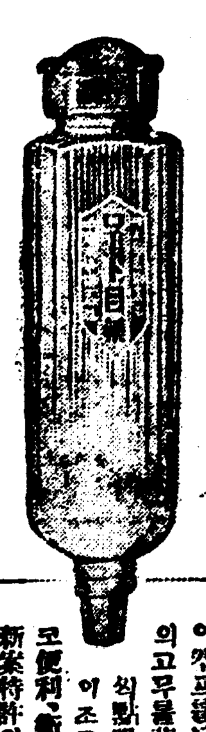
優美館
八月二十一日(月曜)早日 大公開
MGM超特作全發聲映畫
監督 최ー래ー스 主演 라이스나ー氏
나가자女性軍 全十卷
主演 마리ー도렛스라ー 夫人 모리ー모ー란 孃
市政을攪亂식히고·강그를横行식이는凶惡한男子橫暴에憤起한그女子가斷然「벼티코ー트」를뒤집고萬丈의氣焰을吐하얏다 同性을불너내니勇敢한는女性軍의猛進勇躍하는씩씩한男姿아말로되는荒武者들을征服식히고야만다와ー너ー싹리ー더ー스超特作大映畫
鐵拳飛行 全八卷
監督 로이 대 도루ー스 氏
主演 몬드 프 ー 류 ー 氏
空中의冒險! 破天荒의粉碎的活劇!痛快壯烈!

第一劇場
八月廿一日(月)부터 特別映畫初秋公開
每日 二回 夜一時 八時十五分 始映
料金 大人 階上 十五錢 小人 階下 十錢 均一
도로 社作品
活劇 曠野의猛者 全六卷
主演 金光子孃 姜弘植
언제나明日의社會에서괴로움과씨우는이들의눈물 그모든것이 돈에서 문이다
幕間 姜弘植 伴奏 獨唱
時代劇 右太프로作品 마킈노 新興
名優 市川右太衛門 主演 鈴木澄子
影法師捕物帖 十卷
幕末時에도처마다고생中에드러잇난犯者를救코저하는影法師는그누구인가?

中央館
八月二十四日부터
大衆料金 階上 大人三十錢 小人二十錢 階下 大人二十錢 小人十錢
佛國토ー파스映畫社全發聲 世界的傑作名畫週間
1 巴里祭 10
佛巨匠르네·크레ー르監督 토ー파스映畫社全發聲 日本版
2 制服의處女 10
레오·데이누ー샤간女史監督 次週=우리들은마음대로 10
佛映畫 愛國者 10
佛獨傑作 =驚香ー丁ー 氏 루랑크 나가나 ー 리나의再生、地獄의文은者、「氷山、魔의家」케이지、에스키모 ー 全米卓
黃昏의계집、케니아의一生、放鄕의노래 ー 壽의凱歌、暴風의處女、애가난잘잔나、銅 ー、謎의飛馬犬반마다오는女子、密外國、恐怖의甲板、南海의動火、孝子、공子、시가론、도나오,戀人、獨立寺備隊、動物南殺人事件、家畜

朝鮮劇場
廿四日特別封切 初秋映畫界에待望의 諸彦에게 新興の映畫界に於て絶讃の最高峯……!! 山岳映畫の過程を起せる山の傳說……怪奇と山岳美を織なす一篇の哀話!!
獨逸ゾーカル社超特作全發聲版
監督 レニ・リーフェンスタール 撮影 孃 ベーラ・バラツ氏 ハンス・シュネーベル 作曲 ジュゼッペ・ベッツイ氏
傳說の 怪異 靑の光
新興キネマ初夏超發級現代劇 原作 國石義夫 サンデー每日連載 監督 田中重雄 撮影 中井朝一 主演 河津淸三郎 水原玲子
靑島から來た女
助演 小宮一晃、德川良子、國城大輔
主題歌 港の雨
コロンビア・レコード吹込
「懷しの港の雨にふられ 泊船もせまれば 「別れの酒だよ 涙の酒だせめて 唄はにやたわられようか」
ワーナープラザース映畫
監督 ロイ・デル・ルース氏
男は度胸
主演 マット・ムーア氏熱演 次週公開嵐寬壽郎主演「隱密一代男」 表都子主演「仇なさけ」

玲瓏·鮮銳한眼!!



이캡프를벗기고、瓶의上部의고무를若干누르면一滴씩點眼할수잇소。藥이조곰도浪費되지안코便利、衛生、經濟를兼한新案特許의容器입니다。

網膜을刺戟하는强烈한光線과숨막히는塵埃、소리도업시襲來하는病菌의脅威——激甚한生活戰의前線에서奮鬪에疲困한눈에安息과營養을與하라。그것은近代人의用意다、常識이다、『世界의眼病國日本』의不名譽로부터解放되기爲하야于先眼藥의選擇을勿誤하라

現代眼科藥의最高標準을것는것

로—도안약은本邦眼科醫界의權威、井上獨國醫學博士가國民眼科衛生의立場에서治病上及健眼上、가장有効하다는優秀한處方을藥學博士中尾萬三先生指導下에嚴製한것이니我國醫學、藥學의粹를모아現代眼科藥의最高標準을것는것입니다

家庭藥의使命——効力第一

손쉽게使用하야眼疾을趁卽곳치다는것은家庭藥인眼藥의第一使命입니다。로—도안약은優秀한收斂作用、防腐、殺菌作用、消炎作用、鎭痛作用等、무릇眼疾의治療에必要한諸作用을完全히具備하고從하야、何等他藥液으로눈을씨슬手苦를덜고그러고도超스피—드的藥効를가진것입니다

눈을刺戟치안음(쓰리지안코압흐지안함)

로—도안약은奏效迅速할뿐아니라點眼하야눈에不快한刺戟업고(쓰리지안코압흐지안함)點眼後참말『눈이샌듯한快感』을느끼는것은그자랑할만한特色의하나이니이것은眼疾治療上은勿論、스포—츠의前後或은讀書、記帳、裁縫等細密한일에從事할때에使用하야最良한效果를보십니다。

最大의信賴—日本一의販賣高

로—도안약은現에그販賣高에잇서斷然日本一인榮譽를保有하고잇슴니다。이顯著한事實은로—도안약이近代人의要求에完全히合致하야社會最大의信賴를受하고잇슴을가장雄辯으로말하는것입니다

適應症

結膜炎·結膜充血
疲勞眼·學校眼炎
角膜炎·眼瞼緣炎
角膜翳·토라호무
麥粒腫·淚囊炎等

俗稱 充血된눈、돌림눈、血眼、진물른눈、눈곱씬눈、雪盲、凝眼、흐린눈、삼눈、씰린눈、다리세、濁한눈、부은눈、마른눈等

生産合理化의結果

藥價低廉

自働點眼容器入

大瓶	五十錢
中瓶	三十錢
小瓶	二十錢
小兒用	二十錢

◎全國各處의藥房에서販賣함

視力保健運動의第一線에선

世界的眼科藥—井上獨國博士處方

効力第一 로—도안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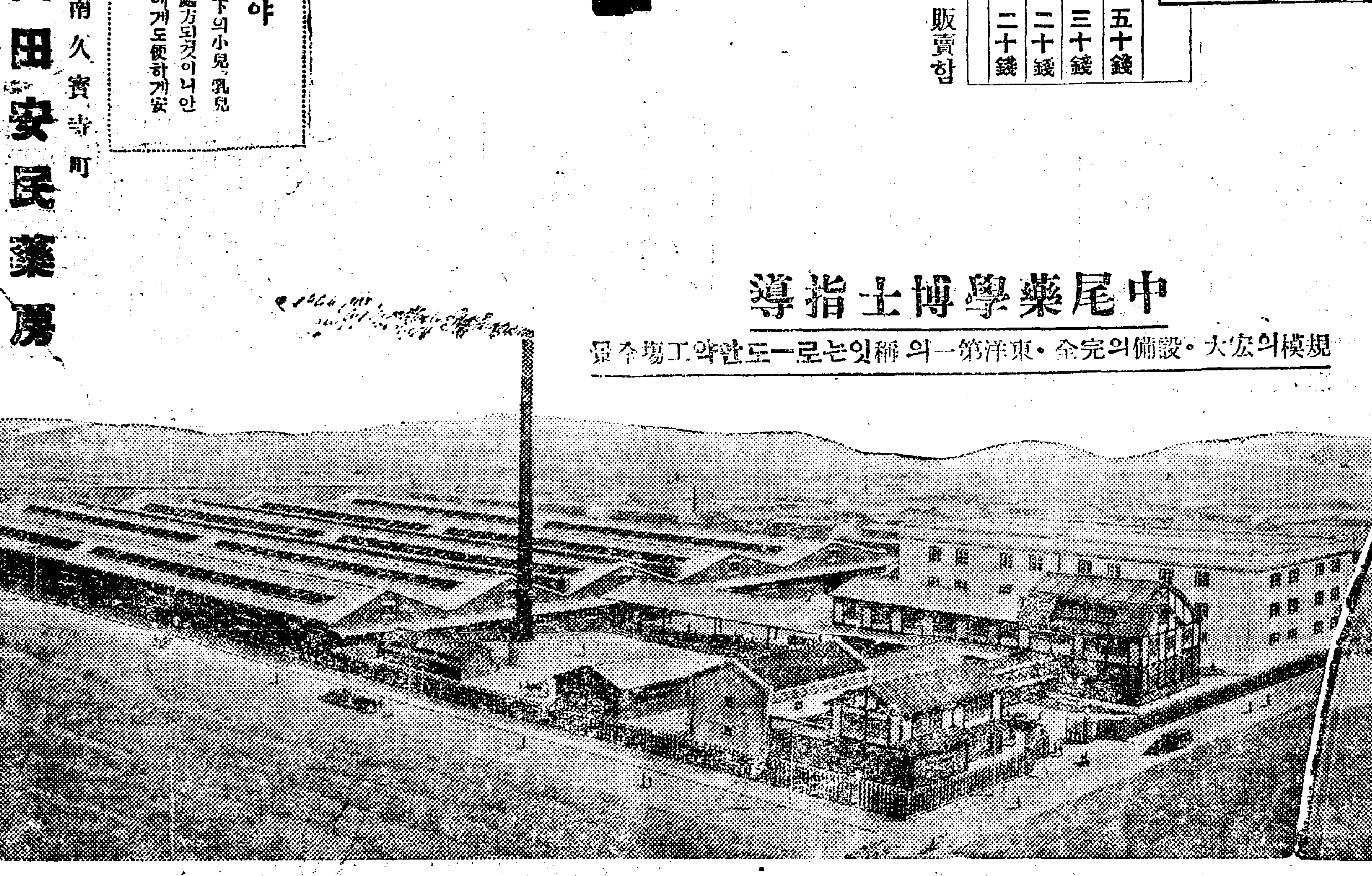
小兒用로—도안약에就하야

小兒用로—도안약은十五歲以下의小兒、乳兒의眼疾治療及豫防을使命으로하고處方된것이니안쓰리고、안아프고아모리어린애기네에게도便하게安心使用할수잇습니다。

大阪市東區南久寶寺町
本舖 山田安民藥房

中尾藥學博士指導

規模의宏大·設備의完全·東洋第一의稱잇는로—도안약工場全景



昌信校開校漠然
無心한暴風雨에헐린 校舍修理費가업서서
重疊하는이悲運

【馬山】 마산 사립창신 학교(馬山私立昌信學校)는과거삼십년동안을두고 그경영에잇서서 내적으로나외적으로多大한곤란을겪거나오면서 공립보통학교를 켜하고는 족하나밧게잇는 우리아동교육긔관으로 이래칠백명에 갓가운 졸업생을내여 괴지안흔 인재를사회에 내노앗는바 이학교는 그간 호주인(濠州)선교 사회에서의 년이천원의 보조로서근근히경영을 지지해 나오며 이백에 아동을 가르켜 오든중불행이지난달 이십사일파이달 초의 폭풍우에 교사가모다문허저서 록백여원이나 가저야할수리비가업서서 신학긔가 갓가운오날날 아즉도수리를 못해도저히 아동을 수용할수업게되야 자못 그前途가 암담하다한다

『사회의저지만 바랄뿐이외다』 當局者 某氏 談

이에對하야 그래도 방학중의 학교를 직히고잇는 학교당국자의한아인 모교원은 눈물을먹음고다음과가티 말하엿다

「글세올시다 커도이학교가나허준한아이며 현재 이학교를붓들고잇는 한아이외다만 설상가상으로 경영곤난에 부지도근근히하는 이학교가 폭풍우에이모양이 되고보니 나올데업는 수리비를 엇더케햇스면좃겟습니가 선교사회요 말든맙시오 년이천원이란 그것도 내느니안내느니 하는판이외다 우리가씨우지 안엇더면 지금까지도붓들지 못햇슬지도 몰으지요 개학긔는 닥처옴니다만 보시는바와가치 이모양으로는 도저히 아동을 수용치못할판이외다 그저사회여러분에 지지와동정만 바랄수밧게 업습니다 일년경비란 모다 삼천삼백원밧게되지안습니다」운운

夏期聖經學校

【利川】 리천군백사면 현방리 감리교회에서는 지난달 칠월이십륙일부터 삼주일간 하긔 아동성경학교를열고 무산아동의 동화,유희,창가 등을 교수하엿는데 한글해득자 삼십여명을 엇게되엿스며 만흔소득을 엇엇는바직원은아래와갓다한다 ▲校長 溫順姬 ▲敎師 林甲洙 許壽衡 ▲財務 裴三德 ▲顧問 李公七

『港民會』解消코『商工會』를創立

【羅津】 당지상공업자들은전에잇든 항민회(港民會)를 해소하고『라진상공회』(羅津商工會)를 조직하려고 이래준비중이든바 십구일오후한시경에영정(榮町)춘범루(春帆樓)에서동회창립총회를 암석헌인(岩石憲人)씨사회하에 개최하엿는데 참집회원 이백십팔명중에 조선사람은 사십사인밧게 업섯는바 이것으로서도 벌서이 라진은 일본인중심의 도시임을 표상하는것으로볼수잇다 회의는 곳의원선거를 시작하여 의원으로 김원동,암석헌인,상림치작 김귀택,강석(吉原豊吉, 岩石憲人, 上林治作, 金璞宅, 鄭澳)외십오인을 선거하고 이의원회에서 다시 알에와가튼 역원을호선하고 다섯시반에폐회하엿는데 이번창립총회는 단순히 의원만선정하는데 끗치엇스며 의원에도조선인은 겨우두사람이 당선되엿다 ▲會長 岩石憲人 ▲副會長 金璞宅 柳瀨彦 ▲常務議員 吉原豊吉 井上賢作外三人 ▲會計 吉原豊吉

興南에서도 防空演習實施 廿八九兩日間

【興南】 홍남방공사령부에서는 오는이십팔구 량일간홍남에서 방공연습을 실시한다는데이 십삼일은 예비연습으로 오후구시에 경찰서와조질회사에서차이래등을여 일반에알니게하는 동시 일분간소등(消燈)케 하고이십팔일오후 구시부터 십분간 이십구일오전 구시 동일오후이시 이와가티 삼회에궁하야실제연습을 행한다는데 야간연습시에는 어연놓음을물론하고 모다소등하라고한다

江景强盜 前科者徐甲信 犯行自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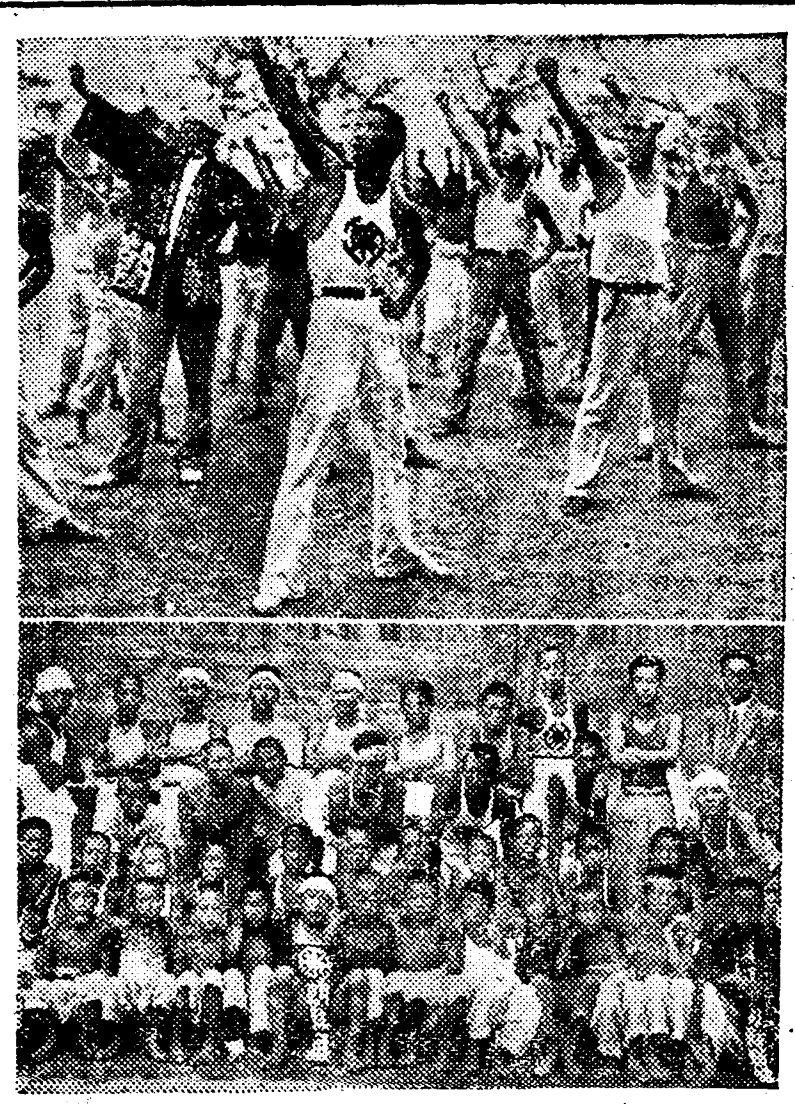
【江景】 긔보=강경에서중대사건으로 동경찰서의 비상한활동을개시하야 필경체포된 서모는 십칠일밤새로쎄시경에 금청리광수의집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형사의행세를하고 주인을차다가 것칠업시안방으로 들어가 처 현금일백사십원을 강탈도주 하얏다는 사실을 자백하얏다는바 서모는 긔보와가티 금청부호권모의 집에 침입 장총을보내고 정역특계 결속하고나온 전과자서갑신(徐甲信)(三一)이라고한다

保健體操講習
統營서도大盛況 지난十八日에終了

【統營】 억세조선의건강의표어로 금년하기를리용하야 본사에서 각지로강사를 파견하야전조선적으로 각지방에서 보건체조의소래가 놉하진것은이미루보한바어니와 금번 본보통영지국주최와 재경학우회 통영학우회후원으로 지난십일부터 통영공보교교정에서 아침 다섯시부터 일곱시까지 재경학우회원중 체육강사 김봉긔(金鳳騎)정봉일(鄭鳳溢)보조강사 허지오(許祉吾)외 삼군의강사 밋헤서 억센체조의소래가 매일계속하야 이주일간 인지난십팔일에무사終了하얏다한다

禮拜堂定礎式

【安東縣】 지난팔월십구일 오후세시에 안동현여진 좌편공지에 지하실까지 삼층으로건축비 이만원가량의 안동현 그독교회당신축정초식을 성대히거행하얏는데 태빈으로는 멀리 평양채필근목사를위시하야 안동현일반유지도 다수래참하엿는바리보식(李植)목사의 설교가잇슨후 폐회하얏는데 오직안동현에 잇서서우리동포의 손으로된 건물로는이례배당이 초유의대건물이 되리라한다



◇寫眞……(上)保健體操講習의一場面(下)同講習員一同 (本社統營支局主催)

南原金組一人當 負債額百十五圓

【南原】 남원군사매면금융조합은 소화칠년이월에 개설하엿는데 금년오월말일 현재의조합원이 칠백사십삼명이고 총대부액이 팔만사천삼백구십원이며 일인평균 백십오원의 부채액이라는바 농촌피폐의일면상을 현실히 낫하내고잇다 동조합리사는 다음과가티 말하엿다 「개설되기는 작년이월십일부터 엿엇는데 그시에는 조합원이 칠백사십여명에 대부금이 칠만이천 이백이십오원이며 일인당부채액이 일백사십원이엿섯습니다 그런데도리허 지금 현재는개설긔에비하야 개인부채액이적어젓스나총대부액도 증가햇지만조합원이 더욱증가한원인이데 매우허 안한노릇입니다 다빗년도는전부가 구채정리토지 매입농사 자금등으로 유익하게쓰는데 딱한사람이 방탕한생활을하는모양입니다」

그와가티 [illegible] 자살한것이라고한다

兩水江鐵橋期成
江原陳情團七人上京 洪川、橫城兩郡期成會에서

【楊平】 경성한강철교를개축케된것을계긔로 양평양수강(兩水江)에그철교를 옴겨오고자양평에서 맹렬한운동을 하는것은량수강파 밀접한관계를가진 강원도긔보와갓거니와 이번에는 량수각지에서도 이에호응하야 맹렬히활동중인데 더욱 량수강에리해를만히갓고잇는 홍천,횡성량군에서는 량수강철교 긔성회를 각기조직하야 지난 이십일에는 홍천긔성회 박한표(朴漢杓)리공춘(李鍾春)남궁표(南宮杓)산구(山口)사씨와 횡성서는 신현만(申鉉晩)정석봉(鄭錫鳳)신영순(申永淳)삼씨등칠인으로조직된 강원도진정단이 양평을통과하야 상경하얏는데 총독을위시하야 각관계당국에 진정하리라고한다

醉한靑年轢死

【元山】 이십일일아침 다섯시경 원산 창고개선로에서 또한사람의 력사체가발견되얏는데 그친남은밤에 력살된것이라는데 이사람은 시외중청리에사는리성로(李成老)라는사람으로술이 취하여 그가치되것이라고 추측된다고한다

新溪에牛賊

【新溪】 지난 이십일밤 신계군신계면 희동리(新溪郡新溪面東里)에사는 신덕모(申德模)의집에 집안사람이 자는틈을타서 소한마리를 끌고다라낫다는데 어른날 아츰에야이를알고 일변경찰에 고발하여사상으로 차자갓다는바 이급보를들은 신계서에서는 범인체포에 로력중이라고한다

夕陽!荒涼한海邊에 悽慘한떼우름!
風浪에犧牲當한男便그리어 눈물겨워하는그들!

【長箭】 강원도 장전항 화랑한해변에서 지난십구일 하오륙시경에 황혼을굽어보고안저 하염업시 눈물짓는 젊은부녀들의 애닯은 우름소리는 구천에사모처 오고가는사람으로하야금 뜨거운눈물을흘리지안흘수업게한 사실이잇섯다 그들은동항에사는 안칠성(安七星)(三六)리종락(李鍾洛)(三五)김태운(金泰雲)(三三)으로 팔월일일에 고기잡으려바다에 나갓다가 폭풍우를맛나죽엄을 이룬사람들의안해 들로서비록 미신이나마당일 무당을다려다가 령케를지내느라고 이가티 우름곳을이루엇다는데 아득한푸른바다에 남편을 보내고한놀에 구름한점만보아도 한숨을지으며 눈물뿌리는 어촌의젊은부녀들의 가슴속에는 이가티눈물겨워 하는사실이 얼마나만흘것인가

强制力업는調停令은 作人을救濟치못한다
中間作人과舍音徹廢가必要

【平壤】 륙월일일소작조정법이 조선에실시된이래 삼개월간 평양 지방법원에서는 이십이일까지 조정재판을 개청하기겨우 오회뿐 남조선방면에 비하여서 북조선지방은 무풍지대인 감이잇스나 취급한오건의 조정공판으로 폭로된 소작제도의결함의 주요한것으로는 지주 소작인사이에잇는 중간소작인내지 사음제도의 악폐의존속으로서 강제권이업는 조정법으로서는 도저히 소작인을구제할수가 업는실상에잇다 그럼으로 중간소작인 사음제도를인정하지안는소작령의실시를 요구함에 일으게되엿고 법무국당국에서도 이상과갓흔실정에응하여소작령을연구하는중이나 어느때에나 실시될런지는의문이다

公金橫領犯 送局

【新上】 거금대장을위조하야 재직사개년동안 여원의 공금을횡령소비한 원신상우편소장대리 한영원(元新上郵便所長代理韓永源)과 김병환(金秉煥)은 지난십팔일에 정주서(定州署)에 류치되여 취조를밧다가 지난십팔일에 업무횡령 공문서위조등 죄명으로일건서류와함께 함흥검사국으로 송치되엿다한다

利川郡의 堆肥奬勵데ー
總動員二百餘名

【利川】 지난이십오일오전네시부터 이십삼일까지 군청직원 경찰서, 면소, 금융조합, 각학교직원 농촌진흥회간부들이 총출동하야 퇴비독려를 하엿는데 매호에삼백관식을시기엿다한다

江景錦山間 道路不遠開通

【江景】 충남강경(江景)에서 거북금산(錦山)까지 백삼십리 거리의도로개수를 작년 십일월중착수하야 충남전북량도의 보조와 민간유지의긔부로 공비오천여원을드리고 부역인원 이만수천인이나왓스며 토지약 일만평을편입하야 자동차 운행에도하등지장이업슬만치 개수를하야 태월중순경에는 개통하리라는바 농산물무역상지대한편의을준다하야일반의 고대하는바 이라고한다

在神同胞들의 風水災救濟熱
今番에는灘區同胞들이

【神戶】 경남수재와풍재로고아선상에 울고잇는 동포를구제코저재신형제들은 수차나 구제금을 부송한바잇거니와 금번에도 탄구(灘區)에거류하는 동포들이 눈물겨운 동정금을모집하야 재해지로부송하엿다는데 그방명과 금액은다음과 갓다고한다

▲金性在二圓▲李相辰 鄭益善 閔泚甲 金容九 各一圓 ▲金鍾得七十錢▲具龍大 徐今祚 金容徹 金在福 朴明守 朴朋澤 申明祚 無名氏 金小石 朴東島 辛泳恩 吳永善 曺瓊煥 朴且律 丁大洪 金喜雄 吳康諱 具滋弘 金壽鳳守 尹三祚 崔鳳官 金顯德 曺小萬 權炳周 金英漢 金增壽各五十錢▲吳碩伊 李桂述 安甲宗 李僕守各二十錢▲裵時東 辛萬壽各十錢

獵銃을내라고 老婆結縛亂打
拳銃盜賊과同系統? 江界警察緊張嚴搜査

【江界】 지난이십일일새벽강계군 강계읍남문안(江界郡江界邑南門內)리경규(李璟奎)씨 집에 흉한이돌입하야 자고잇든 리경규의처와 그의장모를 일으켜 노코 리경규가 가지고잇는엽수용사냥총을내라고 위협을 하엿스나 리경규는총을 자긔의큰집에보관하여 두어잇슴으로 업다하엿스나 이흉한은 이를곳지안코자긔를 속인다하야 리경규의장모를 결박하고난타한후 또돈을 내놋지못하고 어데로인지 종적을 감추어 버렷는데 남문파출소의 권총도난사건이 십여일을 지나도아모단서도 엇지못하여 애를쓰고잇는이때 또다시 사냥총을 탐내인 흉한이 나타낫슴으로당국에서는 더욱신경을 날카롭게하며 그범인이가튼 계통의범인이아닌가하야 더욱수사망에 긴장미를 띄고맹활동중에 잇다고한다

露油와六社의 價格競爭猛烈
價格協定機運濃厚 平壤의石油販賣戰

【平壤】 평양은 상공도시인만큼다량의 휘발유를 소비하게되고따라서 휘발유가격의 고저는 상공계에 적지안은 영향을밋치게하고잇는바 로서아 휘발유와 석유가 조선내지에 판로를가지게된이래 다른석유회사와 격렬한가격 경쟁을하게되된것은 조선내지는물론 일본방면에서도 목도하는터이나 더욱이 평양시내에서의 경쟁상황을 들어본다면 다음과가티서 금후만흔 흥미를 쓰을고잇다

평양부내에서 소비하는 휘발유는최소한도로도 자동차에 이만오천상자 고무공장기타가 일만오천상자 합계사만상으로 재래에는

▲테사스▲스텐다ー드▲三井▲라이싱산▲日本石油▲三菱

등소의륙사(六社)가매상(每箱)에륙원오십전식바덧고그것도손해가잇다하여 일원식을 올려칠원오십전식으로 가격을협정실시하라든때에 금년봄부터 로서아석유가 시장에나타나게 되자륙사는 로서아석유에대하야 맹렬한 경쟁을개시하여 현재에는다 로서아석유는품질이 우량함에불구하고 가격이 떠러젓다고 저렴한가격으로 소비자에게 공하게되니 륙사에서도만 할수업시가격을 떠러트린것이다 그러나이러한현상은 압흐로영구히 계속할바못되는터임으로 금후가 주목되며 따라서일반소비자가 목전의리익만을위하여 로유와의 계약을무시하는행동이만허로유측에서는 소비자와의 계약을해야하고 륙사와가격협정을할긔운이만흔터임으로 금후의 진전은극히주목된다

이에관계자들의 금후태도를 들어보면다음과갓다

◇露油代理店長 談

우리로서도 손해가 업지안습니다 다만은 배후에서 원조가잇스니 문제업습니다 그러나소비자들이 목전의 리익에만몰두하여 우리와의 계약을리행치안어 이현상대로 간다면계약을해소하고 륙사와 가격통일을 할밧게업습니다 그러케된다면 가격은 훨신올나소다 또갑시싸구요 계약불리행하는 소비자가잇다면 각성할필요가잇겟지요 목전의 리익만구하다가 급기야 로유와륙사가 가격타협을 한다면소비자인 우리로서는 큰불리한립장에잇스니싸요 운운

◇六社側 某氏談

비잔들은 큰손해를 당할것입니다 평북평안 자동차회사(平北平安自動車會社)만은 계약을 어임업시 리행하고잇습니다 목전에리익이 잇스면 리행하고 업스면 불리행한다는것은 소비자들로서도 충분고려할바입니다

◇消費者 某氏談

사실상경쟁하노라고만흔손해를보고잇습니다 갓가운 장래에 로유와악수하고 가격협정을하기로 될모양입니다 로서아휘발유는 내음새가 업고 질이조화 대단히환영합니다

期日이切迫한 崇專巡廻音樂
鎭南浦에서人氣百%

【鎭南浦】 작보=평양숭실전문학교 학생긔독청년회 음악부에서는 오는이십오일 오후팔시반부터 진남포공회당에서 본보진남포지국후원으로 음악연주대회를 개최하리라는바 숭전관악대(崇專管樂隊)쏀드를비롯하야 멜스베리씨의 피아노독주이며합창,이중창과 녀성고음독창등이잇서서 한번듯지안코는 아니될모양임으로 벌서부터 대성황을예긔한다고한다

身勢悲觀코 投井自殺

【城津】 성진읍욱정고박태경(故朴泰景)씨의처 리명주(李明珠)(三○)가자긔의집 우물에빠저자살한것을 지난이십일일 오전두시경에 발견하엿다는바 그는남편박씨와함께 고향인 개성을 떠나 멀니성진에와서 남부럽지안케지내다가 작년구월에 남편을사별한후 신세를비관하며 그날그날을 보내다가 고향에단겨온지삼일만에 한목의유서와 사랑하는딸(六)을 세상에남겨두고

全義에窃盜頻發
尙今未逮로人心이不安

【全義】 요새전의시가에는절도가빈발하야 곤히잠든새에 상점문을 파괴하고 금전을절취하며 가택에 침입하야 의복과금전등을절취한후 교묘히 종적을감추워버림으로 경찰은 수사에분망중 지난이십일밤에 시장리성추(李聖秋)의집에또절도가침입하야의장속에 너흔현금 륙십여원을홍치고 또이웃집김옥룡(金玉用)집에침입하야 책상설합에너허둔 금시계한개를 훔쳐갓다 또이웃일 일밤에옴비리박상준(朴相駿)의 집에침입하야 현금륙원 이십전을 훔쳐가 버렷슴으로경찰은 창황망조하야 수사중이나 범인은 오리무중이라하며 시민들은잠을 편히못자며 인심이자못흉흉하다한다

運動競技

全朝鮮一週 마라손選手 十六日浦項通過

【浦項】 경성을 출발하야 회녕까지갓다가 관북관동을 폭풍우와 싸워가며 주파(走破)하고 포항에 래착한조선일주 마라손선수 최근성 리민홍 서정국 장명원(張根性,李敏弘,徐廷國,張明源)사군은 십륙일오전팔시본보포항지국에서 출발하야 울산을 지나경남방면으로 향하얏다 그들이 주파한리수는 이미오천여리이며 경성을출발한지 사십륙일을경과하얏다한다

全南浦蹴球戰 碑石里軍優勝

【鎭南浦】 진남포 체육회와 본보진남포 지국후원으로 오는 진남포 축구대회는 예정과가티 지난이십일 오후두시부터 시작되엿는데 확가처아니한 종가업시 신흥(新興)비석(碑石)억량기(億兩機)룡정(龍井)후포(後浦)동리(東里)에서 출전하여 씩씩히 싸운결과우승긔는 비석리군에게로 도라가고말엇다한다

安岳學友主催 西朝鮮力技會

【安岳】 안악학우회에서는금번하긔휴가를 리용하여 일반에게운동정신과 체력증진의 보급을목적으로 오는이십륙일 오후팔시부터 당지안신보교 대강당에서 제일회서조선 력기대회를개최하리라는데 만히출전하여 주기를바란다고한다

近畿蹴球大會 楊平軍이優勝

【廣州】 오래간만에 광주향청년회 주최와 본보광주지국후원으로 켜오는 근긔축구대회는 지난이십일에 강물양평군을 마지하야 곤지암(昆池岩)경안(京安)삼팀의 참가로 오후사시에 성대히개막되엿다 그러나경기중 불상사가 발생하야 대회는 중산되고 익이십일일에 전일의추래를 씻으려청령으로 양평군이 경안(京安)을 사대산하고 다시새로히 개시하야 양과 맹렬한접전을이르다가 정한시간 사분을남기고 양평군이 『고울』일점을 어더 최후의우승은 양평군에게로 도라가고 동일오후칠시에 무사폐회하얏다

第三回全朝鮮水上競技大會

日時 八月二十六日(土)午後一時
場所 大同江特設水泳場
申請期日 八月二十四日
申請場所 朝鮮日報平壤支局 平壤西門通大平運動具店
競技種目 自由型 五十米·百米·四百米·八百米·二百米 平泳 百米·二百米 背泳 百米 番外 大同江橫斷往復、大同江縱斷、女子五十米(每人三種目以內參加)
主催 關西體育會
後援 朝鮮日報平壤支局

本社開城支局 電話四一八番

八月二十四日(木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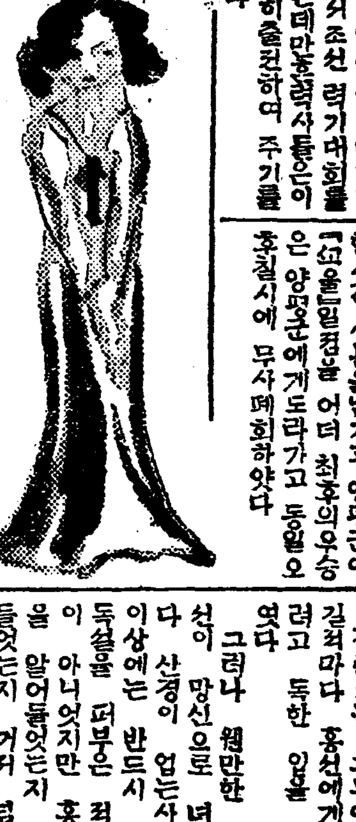
第二放送 波長四九二米
◇午前一一時五分 氣象通報 料理法 日用品時勢 京城府廳發表
◇正午 時報 今日프로그람發表
◇午後○時五分 俗曲 一、界面도도리 二、兩淸 三、羽調도도리 四、널니리야 五、密陽아리랑 六、漢江水打鈴 七、靑春歌 八、방아타령 楊琴 閔完植 短簫 崔壽成
◇同 ○時四○分 뉴ー스
◇同 一一時 家庭講座 劉道順
◇同 四時 犯罪이야기(二) 뉴ー스 職業紹介事項
◇同六時 童話 金쌀애기
◇同六時二五分 라듸오學校 李元珪 큰戰爭이야기(二) 丁洪敎
◇同七時 뉴ー스 天氣豫報
◇同七時三○分 趣味講話 사람의哲學(二) 李晶燮
◇同八時 라듸오드라마 아들의마음 劇藝術硏究會會員 指揮 柳致眞 ●配役● 場所 永浩의집 永浩(兄)…柳致眞 俊浩(弟)…金昌基 淑姬(妹)…金福鎭 父…李石蕃
◇同八時三○分 俗謠 李映山紅 一、愁心歌 二、孔明歌 三、놀량 四、압산打鈴 五、뒷산打鈴 六、노래가락
◇同九時 連續古談 報恩酒幕(一) 朴寅成
◇同九時三○分(A)時報 氣象通報 뉴ー스 翌日프로그람發表

第一放送順序

八月二十四日(木曜)(波長三三三米)
▲午前六時(A)ラヂオ體操 ▲午後○時 京城府廳水陸市場發表 ▲午後○時五分 探偵物語 ▲同二時 婦人講座(四) ▲同六時(A)ラヂオ紙芝居 ▲同六時二五分(C)傳說と史蹟を探ねて(十) ▲同七時三○分(A)講演 ▲八時(O)地藏盆實況 —京都市中京區幸町通三條上ル矢田寺より中繼— ▲同八時二○分(C)哥澤 ▲同八時三五分(B)尺八 ▲同八時五○分(B)浪花節

◇明日順序◇

八月二十五日(金曜) 第二放送(波長四九二米)
▲午前九時(A) 觀艦式狀況 御召艦比叡로부터中繼ー▲同一一時五分 氣象通報 料理法 日用品時勢 京城府廳發表▲正午 時報 今日프로그람發表▲午後○時五分 唱劇調와俗謠 林明玉 林明月▲同○時四○分 뉴ー스▲二時 常識講座 高句麗와百濟(一) 崔文鎭▲同四時 뉴ー스 職業紹介事項▲同六時 童話 金쌀애기▲同六時二五分 라듸오學校(二) 李元珪 丁洪敎▲同七時 뉴ー스 天氣豫報▲同七時三○分 趣味講話 사람의哲學(二) 李晶燮▲同八時 獨唱 方一 柳奇萬▲同八時三○分 歌曲(女唱) 金水晶 鄭彩紅▲同九時 連續古談 報恩酒幕(二) 朴寅成▲同九時三○分(A) 時報 氣象通報 뉴ー스 翌日프로그람發表



史話 雲峴宮의봄 66

琴童 作 芝山 畵

九의四

갑관서는 그뒤에도 긔회생길적마다 홍선에게 망신을주려고 독한 입을 놀리고 하엿다

그러나 웬만한 망신은 홍선이 망신으로 녀기지 안헛다 산경이 업는사람이 아닌 이상에는 반드시 쉬힐만한 독설을 퍼부은 적도 한두번이 아니엇지만 홍선은 그것을 알어들엇는지 혹은 몰라들엇는지 거저 넘기고 하엿다

이러한 홍선으로서도 거저넘기지 못할만한 최극단의 독설이 나올때는 영어가 어름어름 넘겨 버려서 그독설이 직접 홍선에게 미치지안토록 하엿다 하로를 유쾌히 놀으려든 이 답청은 홍선때문에 이상한 긔운으로종시되엿다

저녁때가 거진 되면서로 종일 맑든 일긔가 차차 이상하여 가기 시작하엿다 하녁 하늘에 한검 거ー머케생겨난 구름덩이가 갑사기 퍼지기 시작하다가 순식간에 하늘의 절반을 덥헛다 원뇌(遠雷)의 소리까지 한두번 낫다 이 불쾌한 답청을 어서맛 내이려고 긔회만 보고 잇든 영어가 이 일긔의 급변을보고 즉시로귀가를 재촉하엿다

『어날날세가 갑싸이 변한다 한소나기 오실 모양이구비 오시기 전에 어서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시다』

이리하여 커편 한데서 놀든 하인들을 불러서 일변거더치우며 고군의 준비를하며 하엿다

이리하여 홍선과 갑관서의 새에 생겨 나려든 불상사는 무사히 피쓰가 되려는 듯이 보엿다

그러나 인위로서 만드려는 불상사는 이 최후의 순간에 이르러 그만 폭발이 되고 말엇다

하인들이 남은 음식들을 버릴것은 버리고 그릇 간수할며 하노라고 돌아갈 동안홍선은 음식 치우는 그릇에서 한조각의 포육을 집어서 입에 너헛다

이런데서 남여의 준비를기다리고 잇든 갑관서가 결핏그것을 보앗다 홍선을 망신을 시키려고 버르기만 하면서 아직것 진정한 망신을주지 못하기때문에 마음이 커울이 불만하든 그의 눈에이 욱이 비최엇든지라그냥 돌수가 업섯다 보는순간 그는그편으로 몸을 쏫다 그리고 하인을 불럿다

「여봐라」

하인이 등대하엿다

「엽방 이것다 그남은 음식들을 모도 조히에 싸서 대감께 드려라 내버려야 새 줌승의 사리나할것이니 잘차서 대감께드려라 한동안 안주는 되리라」

그러고 홍선을 향하여 말을 계속하엿다—

「대감 사양치 마시고 가지 가시오 신발 새기고 이런데 가차서 다니시기보다 이것을 가저가면 한동안은 댁에서도 넉넉히 자시리다 이 근처에 개즘승이라도 보이면주고 말겟건만 불행히 그런것은 보이지안코 내 버리자니 대감이 아수해하시겟고…」

홍선은 획 갑관서를 등지고 포육한조각을 집어 씹고잇든 돌아서고 말엇다 그러나그의 뒷덜미가 들먹거리는것을 보아서 떠오르는 격분을 누르려고 노력하는것이 분명하엿다

상권의 부름에 응하는 하엿지만 하인도 이 너무도심한 령은 그대로거행할수가업는지 허리만 굽히고 그냥서 잇섯다

이런 불쾌한 장면을 조정하메는 다시 영어가 들어서지 안을수가 업섯다 갑관서의 령 배분에 그릇을 치우든 하인들이 손을 멈추고 잇는것을 보고 영어는

「금방 비가 쏘다 지랴는데 왜들 꿈질거리느냐」

고 호령을 하엿다

그러나 이 영어의 말에 갑관서가 다시 매달렷다—

「어련히 조히에 싸서 드리지 안코 왜들 꿈질거리고만잇느냐」

그는 하인들에게 이러케 호령하엿다